

중앙승가대학교 교양수행학부 신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 조계종총무원장)은 7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95차 이사회를 열고 중앙승가대가 교양수행학부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 사항은 학제개편에 따른 대학환경변경의 건을 통해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2014년 시행되는 학부제에 불교학부와 불교사회학부 외에도 교양수행학부를 신설하게 된다.

교양수행학부는 중앙승가대에 입학한 모든 스님이 거쳐야할 과정으로, 불교적 사상과 수행가치를 기르는 불교기독교교과와 생애, 생명윤리 등 종교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을 쌓는다.

이와 함께 학부 내 학과를 전공으로 변경해 불교학부는 불교학전공, 불전번역학전공, 문화재학전공으로 세분화되며 불교사회학부는 포교사회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불교상담심리학전공으로 면모를 일신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요청에 따라 기존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종단 추천 개방형 이사의 수를 3명으로 변경하는 정관도 개정했다.

신종일 기자

'불교닷컴'은 불지회 소속 언론

대불청, 25일 기자회견서

대한불교청년회 호법단(회장 정우식)은 7월 25일 11시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닷컴이 불지회 소속 언론사라는 사실과 근거를 공개했다.

대불청은 "사법당국에 진술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교닷컴은 각종 해종행위를 통해 멸법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언론"이라며 "그동안 '개혁 언론'인 양 떠들어온 불교닷컴이 왜 해종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산하 기관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 이유를 묻고 싶다. 인수 시점 역시 김정희가 멸법된 2007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교닷컴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한 일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대불청은 "앞으로 불교닷컴이 발로잡 회를 토에 거둬나지 않는다면 부도덕한 사이비 언론, 비리언론, 해종언론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불교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과 논의해 강력한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이은정 기자

재생에너지로 사찰 전기요금 절감

불교사회학부 '사찰 에너지' 주제 정책 토론회

유가 상승으로 사찰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찰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매스를 도입할 경우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최승철 환경경쟁연구소 부소장은 7월 24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최한 '사찰에너지제도 및 소비형태의 고찰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강연도에 위치한 한 사찰을 연구 사례를 공개했다.

○사의 구조와 전기 사용량을 심층 분석한 최 부소장은 "○사의 1년 심야전기료는 9836만원 수준이다. 주변의 나무연료를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로 난방시스템을 전환할 경우, 대략 5000만원가량 절감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전통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보강을 통해서도 28.5%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최 부소장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제안했다. 최 부소장은 "이제 사찰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생명존중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켜나가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풍부한 사찰립을 가진 불교계에 임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소장은 이어 "보유 사찰립이 200만평 이상 되는 중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임부산물과 인근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난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동수 불교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전통사찰 전기요금제도의 현황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최한 '사찰에너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사찰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찰립 활용한 바이오매스 산간지역 사찰서 효율 높아 에너지 자립까지 '일석이조' 전통 사찰 전용 요금 '부정적'

과 개선방안 모색' 제하의 발제에서 전통 사찰이 공익적 가치를 다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에 임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불교계의 주장에 여타 다른 폐널들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정한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사찰만을 위한 전기요금제도의 적용과 신설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사찰의 공공재적 가치를 반영한다면 모든 종교단체, 체육시설, 의료기관, 국방 등 많은 소비자 그룹들이 사회적 기능을 앞세워 요금인

하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원가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용도별 요금체제에서 벗어나 전압별 요금제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종별 구분을 신설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정길 前 예고부터 공동대표는 "한국의 전기요금은 외국보다 많이 싼 편"이라며 "종교계 환경단체들이 '탈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의 전기요금을 내려달라는 주장은 공적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신근정 녹색연합 녹색에너지지자인 사무국장도 "불교계가 전기 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이 같은 시스템을 잘 알아도 전기 요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실무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com



김두관 前 경남도지사는 7월 24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김 전지사는 대선 후보군 중 유일한 불자이다.

"포용 리더십" 실천

김두관 前 도지사, 자승 스님 예방

대선 후보 중 유일한 불자로 잘 알려진 김두관 前 경남도지사가 7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대선 출마 소식을 들었다. 축하드린다. 원하는 게 이뤄지길 항상 기도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김 전도지사는 "불교는 포용의 종교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 반해 불교에 귀의했다"며 "불자가 된지 5년 밖에 안됐지만, 불교의 '포용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신종일 · 사진=박재완 기자

"민영미디어랩 편입 막아달라"

불교방송 교계 여론 물이 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교방송의 광고 판매를 SBS의 민영미디어랩이 맡도록 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확정함에 따라 불교방송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방위위는 7월 25일 행정예고를 한 뒤 규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불교방송은 7월 25일 불교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반대의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불교방송 박관우 보도국장은 "불교방

송은 국민의 정신과 가치를 함양하는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방송이다. SBS 미디어랩과의 결합 판매보다는 기독교방송과 평화방송과 같이 공영미디어랩, 코바코에서 광고 판매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적 가치의 종교방송 불교방송을 생각한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며 뜻을 밝혔다.

이에 불교방송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능도 스님과 7월 24일 방송통신위와 청와대를 잇따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정혜숙 기자

"기독교 편향 대법관 임명 안된다"

조계종중앙총회, 김신 대법관 임명 동의 반대 성명

과거 종교편향 행적으로 물의를 빚은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은 7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총회는 성명서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신'은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마저 무시한 채 기독교계에 유리한 선고를 내렸다"며 "지진으로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사법정신을 버리고

'기독교 편향의 법정'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중앙총회는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것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를 거부할 것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종교 편향적인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참회하고 일체 공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과거 재판 중 법정에서 기도회를 열고, 특정종교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또,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울산 성시화 운동을 주도해 불교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서툴지만 대화하며 해법 찾았다"

야단법석, 7월 24일 회합... 진솔한 의견 나눈

불교계의 열린 광장을 모토로 시작된 조계종결사추진본부의 1차 야단법석이 7월 24일 회합했다.

조계사 100주년기념관 2층에서 '결사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야단법석에는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들이 오갔다.

마지막인만큼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처음 마이크를 잡았다. "야단법석은 불교를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 변화의 해답을 찾아가는 의미가 있다"며 "들어보면 해답은 스스로에게 있었다. 서툴렀지만 야단법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 대중의 발언이 이어졌다. 봉은사 신도인 평담 거사는 "불자와 스님의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 특히 토론 문화가 전무하다. 토론하며 승단의 개혁을 이



사진은 야단법석 현장

기 했던 부처님의 뜻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학연구소장 허정스님은 "토론 문화의 불모지 불교계에서 대화의 장을 연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수원에서 온 이현수 씨는 "종교의 가르침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데 있다. 그 본질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한국불교 지성화·대중화·생활화

목동큰절 법안정사는 한·불 수교 백주년을 기념하여 설치된 파리공원을 앞에 두고, 반만년의 역사와 배달 한겨레의 혈맥을 안고 영겁을 흐를 한강을 뒤로하여 시대의 민족 진운을 밝히기 위해 법문을 연 도량이다.



대웅보살 조사인명

회주 김효경
주지 윤선호

- 대중일동 -

- 금강법회: 매월 음력 1일 ~ 3일기도 오전 10시(금강경 독송)
- 인등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원각경 독송)
-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아미타경 독송)
-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관음경 독송)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부부법회: 매월 첫째(토) 오후 7시
- 청년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5시~10시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목동큰절 법안정사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호
☎ (02) 2646-4975,
(02) 2653-4888

횡성 大覺正寺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211번지
☎ (033) 433-3754,
(033) 433-0992